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10. 22.(금) 16:30	배포일시	2021. 10. 22.(금) 16:00
담당과장	대외경제국 다자경제협력팀 배성현 (044-215-7710)	담당자	윤태수 사무관 tsyoon@korea.kr

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**-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,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** **경제회복을 위한 3가지 방안 제시 -**

①선제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, ②저탄소·친환경 경제로의 이행, ③국가내·국가간 불평등 해소

-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0.22(금) 11:00(한국시각), 화상으로 개최된 '21년 아시아·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재무장관회의(의장국 : 뉴질랜드)에 참석하였다.

* APEC(Asia-Pacific Economic Cooperation): 아태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역내 최대 경제협력체로, 한국·미국·중국 등 21개 회원국 참여 (☞붙임1)

-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 및 국제통화기금(IMF), 세계은행(World Bank), 아시아개발은행(ADB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인사가 참석하여 「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방안(1세션)」, 「재정 정책 및 예산관리를 활용한 해결방안(2세션)」 등을 논의하였다.
- 또한, 최근 코로나 위기, 기후변화 등 급변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APEC 차원의 협력과제인 세부(Cebu) 실행계획*의 새로운 이행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'15년 재무장관회의(필리핀, 세부)에서 채택, '포용적 경제건설'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행계획

【 세션별 주요 논의내용 】

- 1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
-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거시·재정 정책을 소개하고, 디지털화, 기후변화 위기 등에 대응하여 미래지향적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포용 성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.
- 2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·예산 지원,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- 회원국들은 신속한 재정 지원으로 특히 취약계층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으며, 미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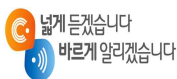
【 우리측 발언내용 】

-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은 1세션에서 주요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①선제적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, ②저탄소·친환경 경제로의 이행, ③국가 내, 국가 간 불평등 해소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.
- ① 첫째,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급진전된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경제·사회 구조전환을 가속화할 시점이며,
 - 다만,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접근성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격차(Digital Divide)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.
- ② 둘째, 저탄소·친환경 경제로의 이행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,
 - 전환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취약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‘공정한 전환’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.
- ③ 셋째, 코로나 위기의 충격으로 심화된 국가 내,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,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·사회안전망 확충, 자유무역질서 강화, 글로벌 공급망 복원, 코로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·배분 보장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.

- 2세션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,
- 재정이 기후변화 대응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,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·공개 의무화 등 민간의 자생력 촉진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언급하였다.

【 평가 및 대응방향 】

-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코로나로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며, 앞으로 정책수립과 운용 과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또한,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부의 핵심정책기조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, 저탄소·친환경 경제로의 이행과 국가 내, 국가 간 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주요 정책내용을 적극 알리고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.
-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APEC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번영 및 경제협력 강화와 회원국 간 협력사업 발굴 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- (개요) APEC은 '89년 아·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,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

* 세계 GDP의 61.5%, 총교역량의 50.4%를 차지('19년 기준)

< APEC 회원국(Member Economies) 현황 >

동아시아	12	한국, 중국, 일본, 대만, 홍콩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태국, 필리핀, 싱가포르, 브루나이
미주	5	미국, 캐나다, 멕시코, 페루, 칠레
대양주 및 기타	4	호주, 뉴질랜드, 파푸아뉴기니, 러시아
총 21개국		* 국가(State) 단위가 아닌 <u>경제(Economy)</u> 단위로 참여

- (비전·목표) ①무역투자의 자유화, ②혁신과 디지털경제, ③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3대 핵심요소로 하는 푸트라자야 비전 2040 (Putrajaya Vision 2040)을 채택('20.11월 정상회의)

- (특징) 개방적 지역주의와 자발적 협력 추구

-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 추구(배타적인 지역주의 배격)
-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비구속적이나, 정상 합의사항은 정치적 약속(political commitment) 차원에서 접근

① 경제상황

- 경제회복정책 및 백신 출시와 봉쇄해제(domestic re-opening)로 인해 역내 국가들(economies)의 경제는 반등*

* 역내 실질 국내총생산은 6%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

- 팬데믹의 지속과 인플레이션 압력,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공급 제약 등으로 하방위험(downside risks)에 노출

② 지속가능·포용적 회복

-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재정, 통화정책 등 본질적, 혁신적인 정책 경험을 공유, 협력
-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IMF의 특별인출권(SDR) 등을 활용하여 거시경제,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
- 접근성 높고, 품질이 검증되고 합리적 가격의 covid-19 백신 생산, 공급의 확대를 추진

③ 예산·재정정책

-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경제 회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팬데믹 대응 재정정책을 조정
- 단기 안정성과 장기 지속가능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의 투명성, 안정성을 강조
- 디지털화, 생산성 제고, 복지, 기후변화, 미래충격 대응 등의 장기적, 구조적 위협요인과 변화에도 대응

④ 장기 과제

- 인프라 개발 분야에 있어 가치투자를 지지하며 역내 재난 금융의 촉진을 위해 노력
- BEPS에 대한 OECD, G20 결정을 지지하며 국제기구의 위기 회복, 장기 위협요인에 대응을 지지